

이재명 “분열은 상대가 바라는 일… 내부 공격 중단해달라”

민주 체포안 표결 이탈표 사태 후 비명계 문자폭탄·제명 요청 등 내용 SNS에 메시지 “내부 갈등 격화수록 민생 방치·정권 견제 동력 약해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난 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내부를 향한 공격이나 비난을 중단해달라”며 “이건 상대 진영이 가장 바라는 일”이라고 밝혔다.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의 대규모 이탈 표 사태 이후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비명(비이재명)계’에 대한 파상공세로 인해 당내 내홍이 고조되자 자제를 당부하며 단일대오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비명계 일각에서는 최근 ‘육중공전’ 논란이 불거지고 당무감사에 관리당원 여론조사 등을 통한 인위적 몰갈이 논란이 제기되

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보이고 있다. 이 대표는 이어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우리 당 몇몇 의원님들에 대한 명단을 만들고, 문자폭탄 등의 공격을 하는 일이 벌어진다”며 “제명 요청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을 매우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시중에 나와 있는 명단은 틀린 게 많다”며 “5명 중 4명이 그랬다고 해도, 5명을 비난하면 1명은 얼마나 억울하겠느냐. 자신이 한 일도 아닌데 누명을 당하는 심정을 누구보다 제가 잘

알지 않느냐”고도 했다. 또 “이간질에 유효한, 전혀 사실과 다른 명단까지 나오는 것을 보면 작성 유포자가 우리 지지자가 아닐 가능성도 커보인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이 대표는 “우리 안의 갈등이 격해질수록 민생을 방치하고 야당 말살에 몰두하는 정권을 견제할 동력이 약해진다”며 “이럴 때 가장 미소 짓고 있을 이들이 누구인지 상상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 대표는 “내부의 정치는 결코 통합의 정치를 이길 수 없다고 믿는다”며 “민주당이 콘크리트처럼 단단해져야 검사독재 정권과 더 결연히 맞설 수 있다. 저도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이탈표 파문에 비명(비이재명)계는 공식 활동을 자제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강성

지지층이 이탈 표 색출에 나서는 등 격화된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 대표 공판이 시작 되면서 당 내용도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당 지지율 추이와 한두 달간의 정국 흐름을 봐야 이재명 대표 체제의 향방을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이 대표의 거취는 결국 민심이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일 열린 선거법 위반 고판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몇 차례 만났더라도 그를 ‘알지 못했다’는 표현은 허위사실이 아니라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3일 이날 “어떤 사람을 몇 번 이상 보면 안다고 해야 하는지, 어떤 기준인지 모르

겠다”며 “어떤 사람을 아는지 여부는 경험한 내용과 횡수로만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사람을 안다”는 기준은 상대적이고 평가적인 요소가 있다”며 “한 번만 봤어도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몇 번을 만났어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안다는 말은 사적인 친분이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김 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한 것이 당선을 위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를 기소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이재명, 인천 화재 현장 방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오후 인천시 동구 현대시장 화재 현장에서 소방당국 관계자로부터 화재 발생 경위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영구 제명 청원’ 6만 8천명 동의

민주 ‘이재명 체포안 표결’ 후폭풍...당 지도부 답변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당내 무더기 이탈표가 발생한 이후, 이낙연 전 대표를 ‘당에서 영구 제명해달라’는 청원이 7만명에 육박하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 올라온 ‘이번에 이낙연 전대표를 민주당에서 영구제명 해야 됩니다’라는 게시글엔 청원 6만 8천 800여명이 동의했다.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 올라온 청원 중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당으로부터 공식 답변을 듣게 된다. 이 대표의 강성 지지자 등을 중심으로 한 청원에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서 당 지도부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청원자는 “지난 대선 때 당장 동 건을 터뜨려서 지금 이 대표가 고통을 받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이낙연 전 대표”라며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의 이탈표의 진원지를 이 전 대표라고 지목했다. 이어 “체포동의안(표결)에서, 그것도 민주당 내에서 반란표가 나오게 만든 것도 이 전 대표가 꾸민다고 봐도 무리는 아니다”라며 “민주당에서 반드시 강제출당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당 대표 사퇴 및 출당, 제명할 것을 청원합니다’라는 내용의 관리당원의 청원도 등장하면서 ‘친명’과 ‘비명’계 지지층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지난 3일부터 시작된 청원은 이날 오후 6시 기준 3000명이 넘는 관리당원이 동의했다. /최원길 기자 cki@kwangju.co.kr

여의도 브리핑

여수발 김포행 항공편 출근시간대 운항

김회재 의원, 증편 촉구 성과

아침 시간대 항공편이 없었던 ‘여수발 김포행’ 항공편이 26일부터 운항된다. 5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여수시) 국회의원은 “26일부터 10월 28일까지 적용되는 올해 국내선 하계 운항스케줄에 따라 여수발 김포행 항공편이 오전 8시대, 오후 5시대, 저녁 8시대 배지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6일부터는 수요가 많은 아침시간대인 오전 8시 45분에 여수공항을 출발하는 김포행 항공편이 운항된다. 현재는 저녁 7시대를 제외, 단 2편의 항공편이 낮 12시 40분과 12시 50분에 편성돼 있어 여수시민과 관광객, 기업인 등 공항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이와 더불어 하계 국내선 슬롯(특정 시간대 이착륙할 수 있는 권리) 배

분 기준도 대폭 개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회재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토부가 참여하는 ‘여수공항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고, 지난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토부 장관을 만나 여수공항 활성화 방안 마련과 항공편 증편을 촉구했다. 김회재 의원은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준 국토부와 항공사에 감사하다”면서 “하지만 아직 매년 100만명이 다녀가는 여수공항의 위상에 걸맞은 대책이 부족하다. 대한항공 재취항 등 항공편 확대, 여수공항의 부경시 국제노선 운항 및 국제공항 승객 등 여수공항을 남해안남동권 물류·관광·수출의 거점으로 만들 방안을 시민들과 함께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



23·30일 본회의의...여야, 임시국회 일정 합의

양곡관리법 처리 관심...대통령실 업무보고 운영위 소집 합의는 불발

여야는 오는 23일과 30일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열어 각종 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5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송언석·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3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은 내용의 3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에 합의했다. 오는 23일 본회의에서는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강행 처리 요구에도 불구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상정을 보류, 여야 간 합의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러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3월 임시국회의 첫 번째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수정안대로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야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무매입 조항이 있는 한 우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3월 국회에서는 이 법이 가진 문제가 무엇인지를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일에 집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진 수석부대표는 “3월 첫 본회의 때 표결 처리하겠다고 했으니 그 일정에 맞춰 추진

하겠다”며 “정부와 여당이 새로운 절충안이나 수정안 등을 제안하면 얼마든지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위한 운영위원회 소집 여부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통해 역설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결정 개입 의혹, 건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등을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에 대한 현안 질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몰타기 시도’라며 반대하고 있다. 송 수석부대표는 “다소 견해차를 극복한 점은 있지만, 소집 여부 등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명품매장가맹점모집

(구찌, 버버리, 프라다, 발렌티노 등 약 1,000여개 명품 브랜드 취급)

모집지역

- ▲ 광주(남구, 서구, 광산구)
- ▲ 전북(전주)
- ▲ 전남(여수, 목포, 순천)

운영

- ▲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 ▲ 온, 오프라인 판매 시스템
- ▲ 네이버 및 인터넷 플랫폼 입점 판매중
- ▲ 점주로 입점 가능(기본 급여)
- ▲ 현 본점 매점 성업중
- ▲ 명품샵 투자자 대 모집(수익율 : 년 15% 확정) (담보제공 및 물품제공)

본점

-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용봉 전자 랜드 보짜 옆) 필 명품관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건물 리모델링


칼라강판 지붕공사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농막


옥상스틸방수

MD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광역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광역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